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신지선
전화 053-570-4304 / 팩스 053-570-4242

보도자료

2023. 6. 12.(월)

제 목

‘화이트 해커’를 가장한 신종 사기수법으로 사기 피해자들을 두 번 올린 일당 직접 구속 기소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제11조 제1항)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용후)는 '22.4. ~ '23. 3.경 '로맨스 스캠' 등 사기 피해자들에게 '화이트 해커'를 가장하여 피해를 회복시켜주겠다는 신종 수법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피고인들을 직접 구속하여 기소하였음

- 피고인 A는 '로맨스 스캠' 등 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사례를 올린 사이트 글을 보고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한 후, 자신도 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화이트 해커'를 통해 피해 회복이 되었다며 피고인 B를 소개
- 피고인 B는 '화이트 해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직접 송금을 받거나 카드 결제를 유도하여 수억 원을 가로챈

※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총 23명, 피해액 합계 약 9억 3,000만 원, 피고인 B는 피해회복을 요구하며 찾아 온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함

□ 검찰은 피고인 B에 대해 불구속 송치된 개별 사건들을 병합한 후 계좌 추적, 휴대폰 포렌식, 주거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통해 직접 구속하여 기소하고('23. 4. 14.), 보완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A의 가담 사실을 확인하고 입건한 후 구속 기소하여('23. 6. 2.), 피해자들을 두 번 올린 조직적 사기 범행을 엄단하였음

□ 검찰은 앞으로 피해자들을 노리는 신종 사기 범행에 철저히 대응할 것임

1

피고인

- A○○(남, 31세) ※ 상선으로 피해자들을 물색, 사기 피해자 가장
- B○○(남, 25세) ※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직접 사기범죄 실행

2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22. 5.~'23. 3.경 피고인 A는 사기피해 공유앱을 통해 '로맨스 스캠' 등 사기 피해자들 13명에게 자신도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해 피고인 B를 '화이트 해커'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B는 위 피해자들에게 해킹 등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약 4억 3,000만 원 편취 [사기]

○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22. 4.~8.경 '로맨스 스캠' 등 사기 피해자들 9명에게 '화이트 해커' 행세를 하며 접근 후 피해회복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약 2억 8,000만 원 편취 [사기]
- '22. 1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 와 피해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함 [상해]

3

수사경과

- '22. 10.~'23. 5.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등 사건 18건 불구속 송치
- '23. 1.~3. 검찰, 개별 송치 사건 병합 후 자금추적, 휴대폰 포렌식, 주거지 압수·수색 등 직접 보완 수사
- '23. 3.~4. 피고인 B 여죄 추가 입건 및 직구속 기소
- '23. 5.~6. 상선인 피고인 A 입건 및 직구속 기소

- 피고인들은 사기 피해자 모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이 올린 글을 읽고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피고인 A는 자신도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실의에 빠져 있는 피해자들의 환심을 산 뒤, '화이트 해커'를 통해 피해를 회복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1차 기망
- 이후 공범인 피고인 B가 '화이트 해커' 행세를 하며 'PG(결제대행)사와 연계, 해킹으로 가상계좌를 개설하여 사기조직의 피해금을 가로챌 수 있다.'라는 등 그럴듯한 감언이설로 피해자들을 2차로 기망하고, 피해자들 간에 돌려막기 식으로 일부 피해금을 회복시켜주는 듯 적극 기망하여 피해규모가 확산됨
- 더욱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해킹'이라는 탈법적인 방법을 통해 피해금을 회복시켜주는 것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피해 신고를 하거나 피해공유 사이트에 글을 올린 피해자를 찾아가 해코지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 신고를 단념시켰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 검찰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사기 피해자들을 노리는 신종 사기 범행에 철저히 대응할 예정임 ▣